

* 김옥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복잡계와 예술
	1. 혼돈'의 심미적 경험
	2. 생명체의 '자기생산성'
	III. 생명시스템과 생태무용
	1. 시스템사고와 생태무용
	2. 생태무용의 내적 경험체계
	IV. 결론
	참고문헌

*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 서울무용교육원장
논문투고일 : 2015.01.30. 심사일 : 2015.02.28. 게재확정일 : 2015.03.10.

The internal experience system of ecodance from Complex Systems theory's perspective

Kim, Ok-he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research intends to discover the meaning of internal creation of individuals through the life preservation experience of eco-dance that connects the value and meaning of ecology with life based on complex systems and find the internal experience system of eco-dance in which mental reasoning as the combination of emotion, thought and value system of individuals and not as an pre-existed dance finds out body and soul as a subject that recognizes itself and comes to realization.

Concentration and experience in eco-dance is a way of knowledge and internalization of ecological value, which results in enhancing the life quality through aesthetic experience, and sharing and getting along in eco-dance is the process of perceiving the ecological life that knows how to fulfill life.

Therefore eco-dance provides the foundation for a communal awareness that respects life characteristics and negates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Also in this regard, eco-dance matches the systematic thought process in which experiencing the wholeness of nature through body and living in harmony with the nature comes to completion by contributing to the Commons.

key words > complex systems, chaos, ecodance, internal experience system
주요어 >> 복잡계, 혼돈, 자기조직화, 생태무용, 내적 경험체계

인간은 누구나 안정된 세계와 질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기 최면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문학을 비롯한 예술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역동성의 근원이 되어 끊임없이 존재와 가치를 생성한다. 즉 예술은 불확실성을 생성하고 메우기를 반복하면서 이로 말미암은 울림에 의해 감동을 자아내고 나아가 상상력을 환기시키는 울림의 구조를 이루고, 그 울림 속에서 세계를 인지하며 몸으로 느끼는 힘을 솟아나게 한다. 우리들이 생명이나 생태 환경에 대하여 신비로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갖게 된 것도 구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며 이것이 예술의 존재 방식을 변화, 발전하게 한 가능성일 것이다.

복잡계 이론은 복잡체계의 질서를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만 찾으려 하는 과학적 이론과는 달리 부분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이론이다. 인간의 생활세계는 단순한 체계가 아니라 대부분은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복잡체계는 무수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집단으로서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각 부분의 움직임의 총화 이상으로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라만상은 원래부터 복잡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연현상, 사회현상 등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체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모습 그대로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생명체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복잡계는 미시물리에서 사회문화까지 설명하는 형이상적 역할을 하며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윤영수, 2008:79-82).

이러한 생태계 연결망의 복잡성은 그 생물 다양성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는 회복력을 가진 공동체이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이다. 즉 상호 의존성, 재생, 협력, 유연성, 다양성은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이며 유지 가능성이다(Capra, F. 김용정 외 역, 1998:48).

한혜리(2014b:59)는 인간의 삶을 인류 생태계로 보는 생태환경 사회에서 교육은 지식에 자신의 사고에 가두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만이 현재 이루어지는 '생성'과 만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세밀한 관찰자가 변화를 먼저 감지하며, 변화를 인지하는 능력은 생태계의 운영시스템에 자신의 지식을 연결시킬 때 창의적 사고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 사고는 예술의 생산 경험으로 이어져 민감한 자극과 반응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내면에 미세한 에너지를 일으키고 그것은 거대한 내면의 공간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엄청난 에너지로 폭풍이 되는 창발과정으로부터 인간의 열정을 뽑어내게 하였다.

본 연구는 복잡계 이론을 기반으로 생태의 의미와 가치를 삶과 연결 짓는 생태무용(오레지나, 2010:56-7)의 양생체험을 통해 개별자들의 내재적 '생성'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존재된 무용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자들의 내면 세계의 가치관, 감성, 사상 등의 정신적 사유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몸과 마음을 발견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생태무용의 내적 경험체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로는 최창현(2002), 한혜리(2014a, b)와 오레지나(2011, 2012)의 연구가 있다.

Ⅲ. 복잡계와 예술

1. '혼돈'의 심미적 경험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공존하게 된다. 인간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접하게 되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과 결정적 판단의 순간을 자각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혼돈의 가장자리에 놓이게 된다.

즉, 결정의 과정과 선택의 순간, 그리고 그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정황을 드러내기까지 혼돈의 복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복잡계의 특징은 각기 다른 것과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실재는 독립적으로 분리 상태에 존재하면서 추후에 관계를 맺는 구성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실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상호 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실재화되는 과정이다(이종관, 2014:5).

결국 실재는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 연결 작용으로 진행되는 동적인 그물망으로 창발되는 과정 자체이다. 따라서 복잡계로 이해된 실재에서 모든 것은 모든 것에 대해 주체와 동시에 객체가 되며 따라서 복잡계의 구성자는 서로 타자가 취하는 행태에 따라 행동하는 동시적 되먹임(feed back)의 관계를 갖고 있다.

복잡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성원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규칙이나 배움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계속해서 창발(emergent) 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복잡계의 혼돈, 자기유사성, 자기조직화, 창발의 새로운 논리는 예술과 교육의 창발성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Osberg, D. 2005:97).

무질서해 보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게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된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은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 부단히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회적 시스템에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개인 구성원들은 저마다 개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서로의 행동양식, 사고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는 대화, 토론 등의 상호작용을 거쳐 개개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이한 패턴의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시스템이 존재하는 외부 환경에 변화가 생겨 적응할 필요가 있거나, 대응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적인 행동양식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양식은 다시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개인 행동양식과 사고에 변화를 불러오는 창발의 과정을 볼 수 있다.

근대 이후 예술은 복잡적응시스템에서 이러한 과정이 성찰적, 반성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성찰적”이란 예술의 주된 관심이 물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 향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대상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고, 이 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성찰적 반성적 측면이 문제시된 것이다. 헤겔은 낭만주의 예술형식에서 자기성찰적 성격을 찾아내었다. 예술은 감각적 형상과 정신적 내용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예술작품에서도 문화적 역사적 삶의 형식이 갖는 정신적 요소가 감각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의 진정한 체험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몸만도 마음만도 아닌, 둘이 아닌 하나인 경지까지 이르는 원초적 직감의 살아 있음이다. 이중적 인격을 전인적 인격으로, 감성과 이성의 분리를 융합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정체성의 정립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예술의 경험은 근본적으로 자발적

이고 그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만, 이 즐거움이 단순한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기에 의미 있는 활동이다.

그래서 예술은 흔히 진지한 놀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예술은 그 부정적 잠재력 때문에 인식을 내세우지 않고도 각성적이며, 실천을 내걸지 않아도 윤리적이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강제나 강요 없이, 적어도 것처럼 놀라운 밀도와 강렬성 아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느낌과 사유로 이끄는 것은 예술뿐일지도 모른다. 자발성과 즐거움, 진지함 그리고 반성력은 예술 활동의 고유한 특성이다. 심미적 경험은 자족적이면서 자족의 영역을 넘어 그 외부로 영향을 끼치며 그 영향력은 사회적이다. 복잡적응체계의 현대 예술은 공동체와 예술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의 일상, 공간, 지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과 대면하게 되면서 공감과 공유로써 일반인들의 예술참여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혼돈 속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을 찾는 것이 혼돈이론의 목적이고 성과는 프랙탈과 자기조직화의 법칙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자기조직화는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반성적 성찰적 자기변형에서 온다. 이런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일 자체가 자유의 실천이다. 좋고 선한 진실의 길을 가는 것은 현대적 인간이 현대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이다. 우리는 예술 속에서 진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혼돈의 심미적 경험 속에서 좋고 아름다운 길을 모색할 수 있고, 이 좋고 아름다운 길이 곧 진실한 길이라면, 진선미의 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적인 길이다.

2. 생명체의 ‘자기생산성’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본성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드러내는 자율적 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적 행위에는 특정한 지향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경험과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내적 메커니즘을 ‘몰입’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체험한다는 것은 곧 삶의 의미들이 한 인격 안으로 엮여 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획득한 이러한 의미들을 언제든 표현하고 싶어 하며 또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체험 세계를 더욱 심화시키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삶의 의미들을 내적으로 구조화하는 과정과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 그렇게 표현된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

은 같은 맥락에서 딜타이의 체험·표현·이해의 순환적 과정으로 해명될 수 있다(Dilthey, W, 2002:34).

생명 활동이란 살아있는 자율 시스템들 간에 상호적으로 구조접속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자기생산이라는 시스템이 모두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상태의 긴밀한 구조 접속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상호 의존적, 상호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접속은 언제나 그 활동이 거기에 참여한 양편 모두에게 재귀적 결과로 이어진다. 구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양편 모두가 상호적 영향권 안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자기생산에 따른 총체적 변화이다. 구조접속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또 기존의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든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자기생산으로 이어진다. 구조접속과 피드백은 동전의 양면으로 구조접속 없는 피드백은 없으며, 피드백이 없이 구조접속이 가능하지 않다. 이 과정이 모종의 패턴을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획득한 결과의 총합은 참여자 자신을 구성한다(Maturana, H. R. & Varela, F. J, 1987:84). 복잡한 신경계를 가진 인간 유기체는 그만큼 복잡한 방식으로 환경과 구조접속을 이룬다. 그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행위 양식을 드러내며 나아가 자유로운 인식 행위도 가능해 진다.

인식 행위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동안 감각 작용의 상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도로 분화되고 신축적인 신경계의 활동으로 발현되는 특수한 결과이다. 고도로 발달된 인간 신체의 신경 시스템은 의식 경험을 발생시킨다. 의식 경험은 감각과 기억과 감정 등이 복합된 전체로서 '체험'과 같은 것이다. 각각의 의식 경험은 이처럼 특정한 세로 조합체가 결합할 때 발생하며, 이 때 다양한 신경활동, 즉 감각, 감정, 기억, 육체적 움직임 등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순간적으로 결합되면서 나타난다.

이 과정은 마치 음악 세계의 공명현상과 유사하다. 수많은 음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로 융합될 때 공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의식 경험에 대한 이 같은 이해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집중 현상이나 자발적 행위와 관련된 의지 현상과 성격,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신경 메커니즘, 기분, 감정, 이성적 사유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이 벌이는 자기생산 과정에는 의식 작용에 따른 의미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의미란 인간 체험의 질서 형식, 곧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여 구조화된 것으로 잡다한 경험을 하나의 형식으로 상징화한 체계이다.

사회현상의 정신적 특성은 모두 이와 같은 의미 현상, 즉 개념, 사고, 이미지, 상징 등으로 나타난다(Capra, F, 2003:107). 다시 말해서 자아 개념은 의식적 구조를 지닌 인간 유기체가 외부 환경, 즉 타자를 포함한 환경 전반과 상호 작용하면서 스스로 생산한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고유한 역사, 경험, 의식 구조, 의미 체계 등의 닫힌 구조와 이러한 개인을 둘러싼 타자와 환경의 열린 구조를 기본 틀로 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생명 시스템의 자기생산 과정은 인지 현상과 자기 반성적 의식이 나타나며 인지, 즉 앞의 이면에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행위과정이 수반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서 인지란 감각, 지각,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을 포함한 생명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이는 정신과 물질을 더 이상 두개의 다른 범주로 나누지 않고 생명 활동이라는 동일한 현상의 다른 차원, 혹은 상이한 국면으로 보는 견해이다. 마음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이는 행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현상을 뜻한다. 오늘날 인식은 의식이라는 추상적 존재보다는 무용과 같이 구현된 의미 그리고 의식을 내포하고 보여지는 무엇으로 표현된 경지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인식이 경험에 의한 것이라면, 지식은 경험의 과정 속에서 감각의 확장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무용체험은 무용 인식의 방법이다(한혜리, 2014b: 69).

예술이 자유를 실천하는 자기 변형적 체험으로 감각과 정신이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자연과 정신의 화해적 형태가 될 수 있다. 이해 불가능한 대상을 표현 속에서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변형시키는 형상화 과정은 예술 표현으로서, 예술참여를 통한 자기 변형 과정으로서 생명체의 자기 조직화인 것이다.

이 변형은 우리가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데 있다. 이러한 예술체험은 ‘질서 속에 무질서’의 심미적 경험을 일으키며 공공의 예술체험으로서 심성의 변모이고, 심성의 변모는 감각과 사유의 변화를 포함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무용 체험은 인간의 자기 이해와 삶의 가치를 사유하는 인식의 방법으로서 자기 생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 시스템 사고와 생태무용

21세기 과학에서 전일론적 관점은 시스템적 관점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함축하는 사고방식이다. 시스템 즉 '체계'는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특성이 발생하는 통합된 전체를 뜻하게 되었으며 시스템 사고는 어떤 현상을 보다 큰 전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인간은 여러 신체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신체 기관들은 세포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열린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외부와의 교환이 지속되는 한 비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교윤주, 1997: 3-5).

열린 시스템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 시스템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열린 시스템의 기본 속성은 이미 언급했듯이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 시스템과 환경은 서로 간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결과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나타난다. 시스템은 환경에 의해 변화하고 환경은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고리는 시작도 끝도 없다(Maturana, H. R. & Varela, F. J., 1987:322).

둘째, **열린 시스템은 자기 조직화**를 한다. 열린 시스템은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시스템 내부의 작은 변화도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한편 시스템은 외부에 의해서 깨어진 평형을 회복하려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열린 시스템에는 자기 유사성이 존재**한다. 끝개란 깨어진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방향 또는 운동이 수렴해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끝개의 힘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게 자기 조직화되는 시스템의 구조는 유사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발달의 비선형성은 시스템이 새로운 질서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창발과정에서 나온다.

이러한 시스템 이론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인지Cognition, 즉 앎의 과정은 생명 과정과 동일시된다. 이는 감각과 행동을 연결해주는 신경시스템의 기능에 의해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함축하고 있다. 인간은 어떤 환경적 조건에서든지 가장 효과적으로 행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인지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마음을 구성한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인지 과정은 모든 수준의 생명 시스템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기체의 행동이란 언제나 인지적 정신 과정을 수반하며 여기서 마음은 살아 있음의 본질이다(Capra, F., 1998:227-230).

생태무용은 생태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생태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생태적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명상, 표현, 실천으로 구성 원리를 정립하였다(오레지나, 2012:57). 몰입과 체험은 ‘앎’의 방법으로서 생태적 가치의 내면화로는 미적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며, 어울림과 나눔은 삶을 실천할 줄 아는 생태적인 삶에 대한 인지과정이다. 생태무용은 생명성을 존중하고 관계의 차별과 소외를 지양하는 공동체적 의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몸을 통해 자연의 전일성을 경험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의 역량으로서 공동체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완성적 동기에 이르는 시스템적 사고이다(김옥희, 2014:102).

생명 유기체가 환경과 맺는 상호관계 방식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개별성을 경계로 그 내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과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전자는 명상을 통한 몰입의 체험이고, 후자는 표현과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몰입과 표현은 비가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간의 자기생산 과정으로도 해명될 수 있다. 몰입은 활동 주체가 단일 대상에 동요 없이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자율적 활동이 만들어내는 내적 체험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행위이기도 하다. 어떤 활동에 자발적으로 집중하여 참여하는 내적 상태(Full Involvement, Full Engagement)란 신체 활동에서부터 감성, 사고, 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개인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진행된다(Loehr, J., 2004:26).

생태무용에서 몰입(명상)의 체험은 생존 본능의 자율성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쏟아 붓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몰입의 상태에서 의식이 고양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몸과 마음에 새로운 복합적 질서를 체험하면서 특수한 심미적 즐거움을 맛본다. 즉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몰입 행위는 그 과정에서 획득한 의미들을 몰입하는 사람 자신의 내적 구조의 일부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몰입이 가지는 이 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자아는 복합적 성격을 띠며 성장하게 된다(Csikszentmihalyi, M., 2005:130).

물입을 통한 양생의 체험은 생태무용의 원리로서 생태의식을 기반으로 생태적인 몸과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뜻한다. 양생은 몸에 담긴 생명성에 대한 마음과 의식의 진화에 대한 시스템적 견해가 담겨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건강과 치유에 대한 전일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다(詹石窗, 안동준 역, 2006:396). 즉 인체 오장육부의 존재와 그 관련양상이 양생주체의 생태를 구현한다고 가정하면, 사람이 대면하고 있는 우주의 상태와 여러 요소의 상호관계는 양생객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생태무용에서 양생체험은 인간이 파편화된 상태에서부터 전체적이고 통합된 존재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현실을 보다 인간적이고 인류에게 가치 있게 만들려고 결의를 증대시키는 시스템적 활동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김옥희, 2014:102).

생태무용의 구성 원리로서 '표현'이라는 비언어적 차원의 활동은 인간 행위이며, 감성과 이성을 포함하며 타자와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실제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요청되는 근원적 관계 방식이다. 이렇게 볼 때, 표현과 실천은 생명 세계의 관계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근원적 관계가 단절될 경우, 인간은 소외와 고독, 좌절을 겪게 되며 마침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기에 이르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표현활동은 자기 생산성의 중요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술을 생산과 경험의 관계로 설명한 20세기 초기 Dilthey와 같은 학자는 예술작품은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고, 예술적 경험은 심리적인 강력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용경험은 언제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며 변화의 기준도 자신이다. 무용체험이 생산적 상호작용인 동시대 공동체무용인 이유는 무용을 통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같은 것을 다르게 보기도 하며, 낯선 것을 두려워하거나 포용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체험적 인식과 사고적 지식을 구별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은 자아 인식이다(한혜리, 2014c : 11).

생태무용의 참여는 생명성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창발현상이 거듭되어지면서 생태계와 자신의 관계맺음 사이에서 질서를 되찾고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 생명시스템 자체가 그 고유의 생명성을 가지며 스스로 자기조직화 하는 과정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체험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기에 담긴 각각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상징적 기호인 언어를 해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표현에 참여하는 이들은 직관적이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자기 조정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체험한, 그리고 체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다.

2. 생태무용의 참여 체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무수히 많은 생명들의 역동적인 상호종속과 상호작용의 과정들로 묶여있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변형이 되고 진행되며 형태를 발전시켜 안정된 구조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어떠한 작용이나 충격을 가한다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들은 빠르게 그 충격을 흡수해 버리거나 다른 형태로 그 결과를 나타낸다(이관태, 2008:57). 이것은 각 생명체들의 삶과 이들이 어우러진 사회나 생태계에도 다양성이란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개체 고유성은 관계로 인한 삶의 반복과 개인 역사의 중층 구조를 갖는다. 즉 몸은 시간의 누적(진화론)과 이기적 유전자로서 보고, 정신은 선현의 방대한 지식과 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단절성을 갖게 된다. 마음은 그 실체가 없으며 삶이란 관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의 덩어리 개체의 소멸과 탄생을 통한 삶의 반복성을 주위의 관계 속에서 전체이면서 부분이고, 부분이면서 전체인 창발적 형태이다.

생태환경적 사회는 다양한 생활방식과 문화들이 대칭적 관계로 존재하며 상호 생산적인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생태환경 사회에서 예술 공유란, 예술을 자신의 능력과 자본으로 소유하는 것과는 대립된 개념으로서 생태환경 체제와 구조 안에서 인류사회의 개별자들의 존재 의미를 예술을 통해서 찾아내는 인류 공공적 예술체험을 말한다(한혜리, 2014b:62). 그리고 이러한 예술참여의 경험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는 예술 실천으로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공동체와의 접촉인 것이다.

공동체 무용으로서 생태무용의 '살림'의 의미는 생명의 부분이 전체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또 전체를 자신 속에 가질 때 가능해지며, '다움'의 의미는 자기의 조건을 자기 스스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울림'은 전체와 부분간의 상호되먹임의 결과로써,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 인접해 있는 다른 부분에 자신을

동조시킴으로 계의 일정한 특성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부분들에 작용함으로써 계system의 특성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와 요구로 결집된 결사체에서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집단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진화하여 고도의 질서로 자기 갱신하는 자기조절 능력이 있다.

생태무용의 살림, 다음, 어울림의 개념은 자유로운 섞임과 변형, 압축과 해제, 생성과 소멸의 유동적인 과정을 통해 행위자의 내적 심상이 투여, 동일시되는 살아있는 현실감과 생명감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유동적으로 흐르는 가변성으로 몸을 통한 본능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조직화의 기능인 피드백을 통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생태무용의 자기조직화는 몸에 담긴 생명과 마음의 의식과 진화에 대한 시스템적 견해가 담겨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건강과 치유에 대한 전일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다(오레지나, 2012:42).

따라서 생태무용의 참여체계는 자기조직화의 과정으로서 곧 자기변혁의 춤을 만나는 것이다.

권옥희(2007:49-52)의 ‘깨달음으로의 춤과 몸의 존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춤이 단순한 움직임의 춤에서 또 다른 춤으로 진입하여 자신만의 춤을 만들어 내고 다음엔 그 춤에서 벗어나 다른 춤(곳)을 향해 간다고 보았다.

즉 춤의 집합, 규정되지 않은 힘, 우주적 힘, 이 모든 것이 반복적인 구조 안에서 서로 섞이고 힘겨루기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되어진 춤은 변화 발전의 단계를 거쳐 자기조직화의 갖게 될 때 지속가능할 수 있다. 나아가 참여무용으로서 생태무용은 나와 다른 독립적 존재를 알아보는 인지 능력이며 참여무용의 표현적 기술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을 넘어 배려에 이르게 하는 높은 질의 내적 경험이다(한혜리, 2014a:74).

인간이 세상에 비교하여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얻게 된 ‘의식’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된 것들이다. 인간이 우환의식을 통하여 역도를 체험하게 되면, 현실적인 불안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그 판단의 기로에서 보다 나은 결정을 하게 된다. 인간의 주체성이 올바르게 자각되어 완성도 높은 삶으로 나아가갈 때 비로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옥희, 2014:104).

본 연구는 생태무용이 복잡계 이론을 기반으로 생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술 활동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 본연의 질서를 되찾도록 하는 개별성과 유기적인 관계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시스템적 사고에 나타난 생명체는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혼돈의 가장자리에 놓이게 되고 이는 구조적인 접속을 통해 자기생산성을 생성하고 이를 지키려는 비선형적인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임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새로운 질이 거듭나는 창발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복잡계 이론과 예술의 상관성속에 나타난 생태무용의 내적 경험체계는 다음과 같다.

복잡계에 나타난 혼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은 감각과 인식이 매개되고, 심성과 이성이 혼용하게 된다. 즉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둘이 아닌 하나인 경지까지 이르는 예술의 진정한 체험으로서 원초적 직감의 살아 있음이다. 이중적 인격을 전인적 인격으로, 감성과 이성의 분리를 융합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정체성의 정립으로 이끈다. 이러한 심미적 경험은 감각과 인식의 교차훈련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감각과 이성을 더 넓고 깊게 성찰하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직한다. 이러한 경험은 나를 넘어서 공공의 예술체험으로서 심성의 변모를 가져오고, 이는 감각과 사유의 변화를 포함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무용 체험은 인간의 자기 이해와 삶의 가치를 사유하는 인식의 방법으로서 자기 생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생태무용의 몰입과 체험은 ‘삶’의 방법으로서 생태적 가치의 내면화로 미적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며, 어울림과 나눔은 삶을 실천할 줄 아는 생태적인 삶에 대한 인지과정이다. 따라서 생태무용은 생명성을 존중하고 관계의 차별과 소외를 지양하는 공동체적 의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몸을 통해 자연의 전일성을 경험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의 역량으로서 공동체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완성적 동기에 이르는 시스템적 사고에 부합한다.

생태무용의 참여는 생명성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창발현상이 거듭되어지면서 생태계와 자신의 관계맺음 사이에서 질서를 되찾고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 생명시스템 자체가 그 고유의 생명성을 가지며 스스로 자기조직화 하는 과정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무용의 원리로서 ‘살림’은 생명의 부분이 전체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또 전체를 자신 속에 가질 때 가능해지며, ‘다움’의 의미는 자기의 조건을 자기

스스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울림’은 전체와 부분간의 상호되먹임의 결과로써,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 인접해 있는 다른 부분에 자신을 동조시킴으로 계의 일정한 특성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부분들에 작용함으로써 계system의 특성을 강화시킨다. 생태무용의 참여체계는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와 실천을 위한 행위와 과정을 기획하고 개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생태무용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무용으로 소통하기 위해 사회 각 단위의 공동체와의 조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 맺을지에 대한 다각적인 실천 내용을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고윤주(1997). "발달 심리학을 위한 또 하나의 접근방법: Chaos 이론",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 10호집 1호**, 21-36.
- 권옥희(2007). "깨달음으로의 춤과 몸의 존재실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옥희(2014). "생태무용의 자본 형성 원리 탐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3호**, 102-103.
- 詹石窗(2006). 道交文化十五講, 안동준·任曉鵬(역, 2011), **도교문화15강**, 알마.
- 윤영수, 채승병(2007).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의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제3집**, 56-68.
- _____(2011).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2호**, 39-51.
- _____(2012). "에코댄스의 구성 원리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2호**, 39-57.
- 이관태(2008). "생태환경 패러다임에 기초한 청발적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관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한혜리(2012). "참여 무용의 제도화를 위한 교육적 전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제1호**, 41-57.
- _____(2014a). "참여무용의 복합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제1호**, 61-76.
- _____(2014b). "무용 체험과 인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5집 제3호**, 1-15.
- _____(2014c). "생태환경 사회 커뮤니티댄스에서 공동체와 전인교육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제4호**, 1-15.
- Capra, F(1996). *The weboflife*, 김용정, 김동광(역, 1998), **생명의 그물**, 범양사출판부.
- _____(2002). *The Hidden connections. F.Cafrac/Brokman*, 강주현(역, 2003), **히든커넥션**, 휘슬러.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최인수(역, 2005), **플로우**, 한울림.
- Dilthey, W.(1979). *Gesammelte Schriften: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이한우(역, 2002),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 Dewey, J.(1934). *Art as Experience*, 이재연(역, 2002),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 Loehr, J.(2003). *The Power of Full Engagement*, 유영만, 송경근(역, 2004), **에너지 발전소**, 헌언.
- Maturana, H. R. & Varela, F. J.(1987). *Der Baum der Erkenntnis: Die biologischen Wurzeln des menschlichen Erkennens*, Bern: L. Sherz.
- Osberg, D. Biesta, G.(2005). *Complexity, Representation and the Epistemology of Schooling*,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ume 40.